

당정 “코로나19 추경, 메르스보다 확대”

중기·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등도 2조원 확대... 민주 “5일 추경 국회 제출... 정부 시정연설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지난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세출 예산 6조2000억원을 뛰어넘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최종 추경 규모는 이번 주 중반 경에 오늘의 논의를 포함해 기획재정부에서 추계해서 이번 주 국무회의에 올려 확정될 것”이라며 “전체 규모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 메르스 추경 때가 (세출예산이) 6조2000억 원이었는데 그 때 세출 예산을 넘는 규모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때 세입 경정을 포함 11조 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경험에 비춰볼 때 올해 추경도 비슷한 규모가 될 전망이다.

추경 편성 내용으로는 우선 신속한 치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음압 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예산을 비롯해,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을 지원 및 임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및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고, 신영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 위축에도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세칭 ‘착한 건물주’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 생활 안정 대책으로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양육 부도 236만명 대상 아동양육 쿠폰 지급 ▲근로 노인 보수 30% 상품권 수령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액 10% 환급 대책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조 의장은 “고용시장의 피해를 줄이

기 위한 청년고용안정, 저소득층 구직 활동 지원 방안 등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코로나19 피해지역의 경기회복을 위해 고용시장 악화에 대응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역의 방역소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TK) 대책으로는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예산 별도 배정 등이 나왔다.

조 의장은 “당·정은 위 내용을 반

영한 추경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경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 처리 시점에 대해서 “3월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5일 본회의에서 (정부추) 시정연설을 할 수 있는(상황)”이라며 “그 안으로 최대한 서둘러서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해 속도를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에는 예비비도 넣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목적예비를 통해서 정부가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신속히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예비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시민후보로서 뚜벅뚜벅 걸어갈 것”

최형재 예비후보, 민주 전북도당에 탈당계 제출

최형재 전주를 국회의원 시민후보는 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최 시민후보는 “시민후보로 보란 듯이 당선되어, 민주당이 당선 유력 후보를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컷오프한 행위를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시민후보는 탈당계를 제출한 만큼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되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02로 걸려오는 경선 여론조사를 거부하고 시민후보로서의 자신의 길



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김중희 의원, 의정활동 ‘성실성’ 돋보여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국회 김중희 의원(김제·부안)이 예비선거운동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2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40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부친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뜬눈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던 김 의원은 예비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특유의 성실성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같은 김 의원의 열정은 발군의 입법활동 성과로 결실을 맺고 있다. 20

대 국회 300명 국회의원 중 법안가결 건수 2위, 법안 발의 7위의 뛰어난 성적표를 기록 중이다.

이날 법안소위의 최대 관심사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통과 여부다.

김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공공기관 333곳 중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있는 기관이 불과 124곳(37%)이며, 전체 구매액도 140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재=레노데 기자

문 대통령, 코로나19 사투 軍 의료진 격려

국군병원·간호학교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가 감염병 전담 병원 중 하나인 국군대전병원과 대구 현장 지원 예정인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연달아 찾았다. 병상 상황 등 군 방역 체계를 점검하고 최전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군 의료진과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보는 코로나19 국면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대구 지역의 의료 지원에 나선 의료기관 및 의료진 격려 차원으로 볼 수 있다. 국군대전 병원은 국가 코로나19 확진자 34명(군인 13명, 민간인 21명)을 수용하고 있

다. 또 국군간호사관학교 소속 간호장교들은 이날 초 대구 지역 의료 현장에 투입된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국군대전병원에서 코로나19 군 지원 현황 및 군 의료법 정부 지원 체계 등을 보고 받았다. 대구 지역이 병상 부족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군 가용 의료 인력과 시설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 찾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실제 대구 지역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병상이 없어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의료 현장을 찾은 것도 이러한 위기 사태에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것

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방문에서 대구·경북 환자는 국군병원으로 군 의료진은 대구로”를 강조하며 군의 빈틈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찾아 신입 소위 교육 현장을 참관했다. 현재 대통령 중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일부터 임관한 간호사관학교 신입 간호장교 75명은 현재 3월 초 대구 파견을 목표로 휴일도 반납한 채 각종 감염병 대응 훈련을 받고 있다. 임관식 이후 첫 부임지로 대구 지역 현장에 투입돼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의료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4·15 총선 예비후보자 이모저모

박희승 “KTX리무진 버스 신설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예비후보(남원·임실·순창)가 순창 및 남원 동부권 주민들의 철도 이용 편의를 위해 순창←남원역←인월·함양을 순환 운행하는 KTX리무진 버스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남원역 KTX 리무진 버스가 운행되면 철도 사각지대인 순창 주민의 철도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남원 동부권 및 지리산권 주민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2시간 내에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이강래 “토양개량사업 정부지원 이끌어 낼 것”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예비후보(남원·임실·순창) 지역구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토양개량사업에 대해 정부지원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농촌도시인 남원에 대한 농촌맞춤형 정책의 일환으로 농도인 남원지역에 맞는 정책 중 토양개량(격토)사업의 정부지원을 말하는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친환경 농업과 유기농업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이 사업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입을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임정엽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할 것”

임정엽 원진무장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높고먹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지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2004년 당시 여야가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국민·주민소환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지만 실상 관련 법 도입은 지지부진했다.

임 예비후보는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을 퇴출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배수연 “지방의원 무보수 명예직 입법화 앞장”

무소속 배수연 예비후보(익산)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국민소환제, 3선연임 금지,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의원 무보수 명예직”을 입법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2일 밝혔다.

그는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방자치의 본질을 가로막고 있는 ‘정당공천제’와 ‘지방의원 무보수 명예직’을 반드시 폐지하는 입법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배 예비후보는 “이에 대한 효과는 국가예산절감, 집행부의 효율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 확보, 중앙정치에 지방의회 예측화 방지 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상패·트로피제작 전문업체

명품종합상사

TOTAL ADVERTISING WORLD

김한경

광고사업부
트로피 / 상패 / 명패
실사현수막 / 각종깃발
팸플렛 / 리플렛 / 각종인쇄

판촉사업부
기념품 / 판촉용품
단체복 / 기념타올

전주시 완산구 문화광장로23 신화빌딩 1층
사무실 : 063-232-2323
063-251-4664
F A X : 063-286-4665
Mobile : 010-3656-8657
E-mail : mpct2323@hanmail.net

www.mp2323.com